

# 부상 악재 속 피어난 희망, KIA 백업 트리오 ‘눈에 띄네’

‘위기의 KIA’…오선우, 윤도현, 김석환 “우리가 있다”

‘3할타 맹타·멀티 포지션 소화’ 오선우, 당당한 주전 우뚝  
잠재력 폭발 윤도현, ‘5경기 홈런 4방’ 뜨거운 타격감 주목  
‘두번 기회는 없다’, 승부사 김석환, 찬스마다 존재감 발휘



KIA 타이거즈가 주축 선수들의 출부상에도 불구하고, 젊은 백업 지원들이 눈부신 활

약으로 팀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오선우, 윤도현, 김석환으로 이어지는 ‘백업 트리오’가 있다. 이들은 공수 양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위기 속 KIA의 벼랑길 역할을 해내고 있다.

올 시즌 KIA는 잇따른 부상 악재로 전력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즌 초반부터 김도영, 박찬호, 김선빈에 이어 외국인 타자 위즈덤과 주장 나성범까지 전열에서 이탈했다.

설상가상으로 김도영은 복귀 한 달 만에 다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됐고, 김선빈과 나성범은 여전히 복귀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팀 중심축이 빠진 상황에서 팬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KIA는 뜻밖의 희망을 발견했다.

오선우, 윤도현, 김석환 등 젊은 백업 선수들이 연이어 맹활약하며, 침체된 팀 분위기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어서다.

이들은 기대 이상의 뛰어난 기량을 선보

이며 이범호 감독의 깊은 시름을 덜어주는 동시에, 팀에 새로운 가능성은 제시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은 펼치는 선수는 단연 오선우다. 그는 이제 단순한 백업 멤버를 넘어 팀의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4월 12일 1군 무대를 밟은 그는 39경기

에서 타율 0.318, 41안타, 5홈런, 18타점, OPS 0.854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다.

외야 수비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매 경기 놀라운 타격감을 뽐내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내야와 외야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포지션 능력 또한 그의 큰 장점이다.

김도영의 동기인 윤도현 역시 최근 매서운 방망이를 휘두르며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kt전에서는 생애 첫 연타석 홈런을 포함해 4타수 3안타의 맹타를 휘두르며 팀을 2연패 위기에서 견쳐냈다.

시즌 초 백업 선수로 기대를 모았으나 수비 불안으로 2군을 오갔던 그는 나야진의 공백으로 지난달 22일 다시 1군 무대를 밟았다.

올 시즌 12경기에서 타율 0.385(39타수 15안



오선우



윤도현



김석환

(KIA 타이거즈 제공)

타), OPS 1.224, 장타율 0.769을 기록하며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터뜨린 4개의 홈런은 그의 뜨거운 타격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외야수 김석환의 활약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주로 6번 타순에 배치돼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찬스 상황에서 집중력 있는 타격으로 팀에 득점을 안기고 있다.

2018년 1군에 데뷔한 그는 2022년 3홈런을 기

록했지만 이후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고, 올해 12경기에서 9안타와 3차례의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만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그의 꾸준함은 팀의 템스를 더욱 두텁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다.

이처럼 KIA는 부상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젊은 백업들의 활약을 앞세워 위기를 견뎌내고 있다.

이들의 평가와 잠재력은 현재뿐 아니라,

주축 선수들이 복귀한 뒤에도 팀 전력에 새로운 시너지를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과연 이 백업 트리오의 활약이 KIA의 순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팬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주홍철 기자

## KIA, 10-12일 삼성戦 ‘달빛 시리즈’

김태균 사인회·특별 포토존 운영·올드 유니폼 착용 등 이벤트 ‘다채’



KIA 타이거즈가 오는 1~1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벌이는 3연전을 ‘달빛 시리즈’로 명명하고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달빛시리즈’는 광주를 상징하는 ‘빛’과 대구

의 옛 이름인 ‘달구벌’을 조합해 만든 네이밍으로,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양 팀 간의 특별 기획 시리즈다. 시리즈 첫날인 10일에는 KIA 김태균과 삼성 이효성이 합동 팬사인회가 경기 전 진행된다. 또한, 양 팀 치어리더들의 합동 공연과 뒤풀이 응원전이 3일간 진행된다. 입장하는 관중들

에게는 뒤풀이 응원전 때 착용할 야광 팔찌를 무료로 배포한다.

5번 게이트 앞 EV스페이스에는 달빛시리즈 앰블럼 등신대가 설치된 특별 포토존이 운영되며, 선수 소개 등 전광판도 합동으로 운영해 야구장을 찾는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KIA 선수단은 달빛시리즈를 기념해 10번째 우승을 차지한 2009년에 착용했던 원정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단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홍철 기자

## 장성군청 조정 김미수·유지현 장보고기 경량급 더블스컬 우승

광주체고, 남녀고등부 금3·은2

장성군청 조정팀이 제51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에서 종합준우승을 차지했다.

장성군청은 지난 2일 부산 서낙동강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대학일반부 경량급 더블스컬, 중량급 더블스컬, 중량급 싱글스컬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경량급 더블스컬에 출전한 김미수-유지현 조는 7분42초35의 기록으로 ‘전국 최강’ 화천군청(7분50초47), 부산항만공사(7분51초)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중량급 더블스컬에 출전한 이수빈-김미수 조는 7분41초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수확했다.

김미수가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고, 이수빈도 중량급 싱글스컬에서 동메달을 보태며 이번 대회에서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앞서 열린 남녀고등부에서는 광주체고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광주체고는 여고부에서 금 2, 은 1개를 수확하며 종합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지선(3년)과 노효림(1년)이 여U18 더블스컬(2X)에서 7분37초2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지선은 여U18 싱글스컬(IX)에서



경량급 더블스컬에서 금메달을 학습한 유지현과 김미수 /전남도체육회 제공

도 금메달을 추가,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노효림은 김지선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고부에서는 강준우(3년)가 남U18 경량급 싱글스컬(LIX)에서 금빛 물살을 간신히, 강준우(3년)·강한경·박성빈·박준호(이상 2년)는 남U18 웨더플러스컬(4X)에서 6분28초52로 1위 부산체고(6분28초10)에 0.41초 차 뒤진 2위를 차지했다. 김지선은 여U18 싱글스컬(IX)에서

/박희중 기자

## 전남도청 펜싱 박소형, 국가대표 확정

전남도청 박소형(사진)이 2025 펜싱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박소형은 지난 3일 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펜싱 국가대표 선발대회’ 여자일반부 예선 개인전에서 2위에 오르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박소형은 8강에서 최은숙(광주 서구청)과 접전 끝에 11대10으로 승리하며 4강에 올랐고, 4강에서는 이해인(울산시청)을 13대12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국내 1인자’ 송세라(부산시청)에게 12대15로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지난 1월 2025 전국남녀종목별 오픈펜싱 선수권 경 국가대표선발 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박소형은 이번 대회 준우승으로 남은 선발 전 결과와 관계없이 국가대표를 확정했다.

박소형은 지난 2월 열린 제27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도 금메달을 따내며 올 시즌 2관왕의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박희중 기자

## ‘35년만의 이라크 원정’…홍명보호, 6일 월드컵 3차예선 9차전

###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행’ 축포 쏜다

한국 축구가 35년 만의 이라크 원정 A매치에 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매듭지으려 한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6일 오전 3시15분 이라크 바스라 국제경기장에서 이라크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9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3차 예선 두 경기씩을 넘겨놓은 현재 4승 4무(승점 16)로 무패 행진을 벌이며 요르단(3승 4무 1평·승점 13), 이라크(3승 3무 2평·승점 12) 등을 제치고 B조 6개국 중 선두를 달린다. 이번 이라크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까

지 주어지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다.

FIFA 랭킹은 한국이 23위, 이라크가 59위다. 역대 국가대표팀 간 맞대결에서도 한국은 최근 3연승을 포함해 10승 12무 2패로 절대적 우위에 있다.

결전지에 도착한 한국 선수단은 경기 시간쯤에 맞춰 4일 오전 3시 알파이하 스타디움에서 이라크 입장 후 첫 훈련을 했다. 권경원, 원두재(이상 코르파칸), 조유민(샤르자), 박용우(알야인)를 비롯해 파리 생제르맹의 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을 함께

하고서 뒤늦게 합류한 이강인까지 26명의 선수가 ‘완전체’를 이룬 채로 훈련을 시작했다.

코치진은 이라크전에 맞춘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1시간 일찍 훈련장에 도착해 준비했고, 오후 늦은 시간이지만 고온의 날씨에도 선수단은 밝은 모습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훈련에 임했다.

홍명보 감독은 전술 훈련에서 포지션별로 복수의 선수를 두루 기용하면서 이라크전에 적합한 선수가 누구일지를 살폈다.

대표팀으로서는 현지 날씨와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이 최우선 과제다.

현지 기온은 낮 시간대는 최고 45도까지 치솟고, 저녁 시간대에도 35도에 마른다.

한국이 이라크에서 원정 경기로 A매치를 치른 것은 1990년 2월 바그다드에서 열린 친선경기 이후 35년 만이다. 당시 선수였던 홍 감독이 선발 출전한 경기다. /연합뉴스